

MAGAZIN Vol. 02

프시케 Story

Psyche

심리학(Psychology)의 어원인 프시케(psyche)는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공주 이름으로 갖은 고난을 거치고 정화된 후에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상징이다.



부산대학교

프시케 Story
창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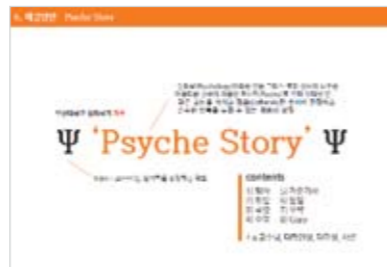
심리학과, 귀를 기울이다.

2012년 10월, 심리학과 역사상 처음으로 심리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심리학과 발전계획안 및 실천 아이디어를 공모하였다. 3~5명이 한 팀을 이루어 제출된 많은 아이디어들은 현 심리학과에 존재하는 문제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학생들의 많은 생각들을 담고 있다.



발전, 소통(疏通)으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들 중 과내 소식지 (프시케 스토리) 발간을 제안한 '프시케 스토리'팀 (황제욱.07, 정지연.10, 황해지.10)이 대상을 받았다. 이 아이디어는 최근 대학생들의 개인주의적 분위기와 함께 심리학과 내 소통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내 소식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프시케 스토리'는 동기들, 선후배 뿐 만 아니라 교수님, 대학원-학부생 간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 낼 것이라 기대한다.



프시케 스토리?!

심리학(Psychology)의 어원인 프시케(psyche)는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공주 이름으로 갖은 고난을 거치고 정화된 후에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상징을 의미한다. 프시케 스토리에는 학과 행사, 취업관련 정보, 수업 정보, 공지 사항은 물론 교수님과의 대화, 선배들과의 대화 등 다양한 Contents로 구성되어 학과 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새로운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리학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프시케 Story
Vol. 02

CONTENTS

- 04 청춘! 우리들의 추억 그 두번째
- 06 자랑스런 한국인의 행복심리 연구단
- 08 자격증 한번 만들어볼까?
- 10 대학원 인터뷰
- 12 효원심리센터를 소개합니다.
- 14 Healing의 심리학 두 번째 이야기
- 16 공감백배 리얼 심리학 적응기
- 18 2013년도 심리학과 학생회장 함영은



청춘!

우리들의 추억
그 두번째

6월 — 더운 여름, 사천에서 농활을!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사천시에 농민학생연대활동(농활)을 다녀왔습니다. 다들 힘들었지만 농촌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추억도 많이 쌓고 돌아왔습니다.

13학번 박민규 • 처음엔 이렇게 힘든 것인지 잘 모르고 따라왔는데 일을 끝내고 매일 재미있는 저녁시간을 보내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코스모스도 심고 하우스에서 팍도 뽀뽀 흘린 뒤 물놀이도 하고~ 내년에도 또 가고 싶네요^^...

7월 — 오픈캠퍼스의 날!

고등학생들에게 심리학에 대해 소개하고 대학원 실험실도 공개하는 날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8월 — 제주도 역사기행 다녀왔습니다! 오예~

6월에 있었던 농활에서 모범을 보여 1등 부상으로 제주도 역사기행을 단돈 만원에 다녀왔습니다!! 멋진 풍경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제주도 역사까지 배우고~

함영은 blossom_12@naver.com

11월 — 밖에서 보는 심리, 안에서 보는 심리

교환학생, 워킹 홀리데이, 대외활동을 주제로 세 분의 선배님들의 현실적이고도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볼 수 있었던 박심 안심! 처음 마련된 자리에도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3학번 김소라 • 워홀과 교환학생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많이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하신 선배님들의 생생한 조언만큼 귀에 쏙쏙 들어오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으리으리한 제이 스퀘어에서 솔직한 장단점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구요. 이런 행사가 계속 생겼으면 좋겠네요^^

제1회 심리학술제

심리학도로서 공부하고 연구한 내용을 교수님들과 여러 학우 앞에서 발표하는 학술제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들을 연구한 내용을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12학번 이남림 •

저도 이번 학술제에 참가했었는데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실제로 데이터도 모으고, 연구하는데 적용해보니 이론적으로 공부했던 내용들이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더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연구방법론 수업을 듣지 않아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수업을 들은 후 좀 더 보완하여 내년에 있을 유익한 학술제에 한번 더 참여해볼까 합니다^^

차기 학생회장 부회장 선출



11학번 정연목 12학번 이남림

심리학과를 이끌어 갈 차기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입니다. 많은 응원부탁드려요^^ 파이팅~



자랑스런 한국인의 행복심리 연구단을 소개합니다.

신현정 교수님과 정영숙 교수님 연구팀은 2010년부터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사회연구기반지원사업 (SSK:Social Science Korea)'의 지원을 받아 연구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2013년 초, 두 교수님은 각 연구팀의 연구과제에서 접점을 발견하시어 하나의 연구단으로 팀을 융합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한국연구재단은 기존의 연구 팀들의 연구업적과 활동 등을 평가하여 앞으로 3년 동안 계속해서 연구지원을 받을 팀을 선정하였는데 92개 팀 중 38개 팀만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 자랑스럽게도 두 교수님의 연구단인 『한국인의 행복심리 연구단』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축하드릴 일은 한국인의 행복심리 연구단이 2010년부터 진행해오던 연구성과물과 활동에서 양적, 질적으로 우수하며, 현재 한국인들의 삶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를 받아 '최우수 과제상'을 수상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인의 행복심리 연구단이 낯선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학과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계시는 한국인의 행복심리 연구단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 행복심리연구단에는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총괄연구책임자 신현정 교수님 (부산대)

제1 심화과제

연구 책임자 •

신현정 (부산대, 인지심리학)

공동연구원 •

이재식 (부산대, 인간공학)
손명호 (조지워싱턴대, 실험심리학)
김비아 (부산대, 응용인지심리학)
이동훈 (부산대, 신경과학)

전임연구원 •

유나영

보조연구원 •

주미정 이고은 이수남 이윤경
강현민 김윤경 박동진 김요한

제2 심화과제

연구 책임자 •

정영숙 (부산대, 발달심리학)

공동연구원 •

안정신 (부산대, 노년학)
서수균 (부산대, 상담심리학)
Sato, S (오사카대, 교육심리학)
Hsu, H-C (아시아대, 보건학)

전임연구원 •

정여진

보조연구원 •

조설애 정영주 이윤희 전지혜
김유정 문정희 이화진 김지혜 장다운

융합과제

연구 책임자 •

신현정 (부산대, 인지심리학)
김비아 (부산대, 인지심리학)

전임연구원 •

유나영
정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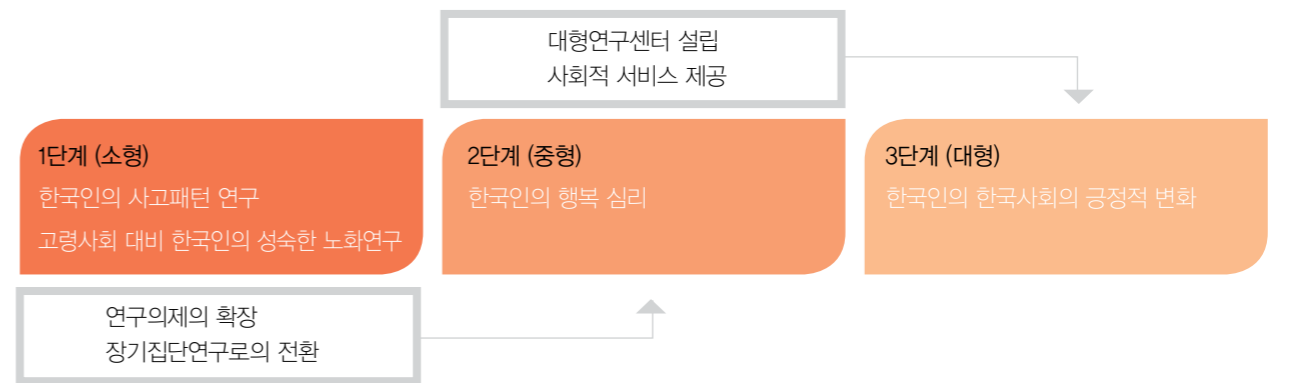
보조연구원 •

이고은 조설애 이윤경
이윤희 김요한

다양하고 복잡한 개념 가운데 하나인 '행복'을 연구하기 위해 행복심리연구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태국에서 활발히 연구 중인 두 외국 교수님들과의 적극적인 비교문화 연구를 통해 '한국인'과 '한국사회'를 정확하게 이해 하기위해 연구 중입니다.

😊 행복심리연구단은 무엇을 연구하나요??

『한국인의 행복 심리 연구단』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단은 한국인의 행복심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신현정 교수님과 정영숙 교수님 연구팀은 각각 한국인의 사고패턴과 한국 노인의 성숙한 노화에 관해 연구해오셨습니다. 이후 두 연구팀이 공통적으로 한국인의 긍정적 심성을 찾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한국인의 사고패턴의 긍정성과 웰에이징(well-aging)을 연계하여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수한 '한국인의 행복심리'에 대해 연구하고 계십니다.



😊 왜 한국인의 행복에 관한 연구를 하나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좋지 않은 꼬리표가 붙어다니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지수 최하위권(27위, 10점 만점 중 평균 5.35점)... '한국인은 정말 불행한 것일까요? 급격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일까요? 이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서 연구의 물음은 시작되었고, 본 연구단은 한국인 사고패턴의 긍정성을 밝히고 웰에이징 모델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인의 행복심리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행복심리센터(가칭)'를 설립하여 향후 연구활동과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친숙한 듯 하지만 복잡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행복'. 그리고 이를 탐구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곁에서 지켜보는 제자로서 자랑스럽고 존경심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한국인의 행복심리연구단이 낯설었던 학생들에게도 연구단의 앞으로의 행보에 지속적이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복심리연구단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ssk.pusan.ac.kr
한국인의 행복심리 연구단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부족한 점이 있지만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지켜봐주세요. ^^

김지혜 wisdom4827@naver.com

자격증 한번 만들어볼까? 느낌아니까~

요즘 대학생들의 공통된 고민거리가 있다면,

‘앞으로 뭐하지?’,

‘스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무슨 스펙을 쌓지?’

라는 고민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는 학우들에게

‘자격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무나 따는 자격증이 아닌,

심리학도로서 도전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자격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01 소비자전문상담사 자격증



심리라고 하면 상담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상담은 아마도 힘들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모습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상담사가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전문 상담사인데요,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한 이 상담사는 소비자조사, 피해상담,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복지를 향상시키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 상담사의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필기에서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관련법,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고, 실무에서는 소비자상담 실무능력을 평가합니다. 최근 기업에서 '이미지'가 중시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기업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 하나는 소비자에게서 불만을 이끌어 내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사이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격증입니다.

02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사회조사분석사란 다양한 사회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을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이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이며,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와 실기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필기 시험 과목은 조사방법론, 사회통계이고, 실기는 SPSS활용 등 각종 통계분석 능력을 측정합니다. 심리학도에겐 뭔가 친숙한 내용들이죠? 사실 이 분야는 심리학도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어려워서 머리에 쥐가 나게 만드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많은 쓸모가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게다가 최근 사회조사와 통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연구기관, 통계청, 행정부, 마케팅 등의 많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03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증



브레인트레이너란 두뇌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바탕으로, 두뇌능력 향상을 돕는 두뇌훈련 전문가입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필기는 두뇌구조와 기능, 두뇌훈련법 등 두뇌에 관한 지식을 측정하며, 실기는 두뇌훈련지도 실무능력을 평가합니다. '뇌' 역시 심리학도들에게는 정말 친숙한 개념입니다. 전공을 공부하면서 편도체가 어떤 기능을 하고, 해마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왜 알아야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뇌'가 없으면 설명이 되지 않죠. 뇌가 생소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최근 뇌의 신비가 밝혀지면서 많은 분야에서 자각과 두뇌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전문가가 경쟁력이 있는 시대이며, 많은 부분에 쓰일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04 ERP인사정보관리자 자격증



조직에서 사람을 다루는 활동을 인사라고 합니다. ERP인사정보관리사 자격증은 채용, 교육, 보상 등의 인사와 관련한 지식과 능력을 인증해주는 자격증입니다. 국가가 공인하고 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증이며, 시험내용은 인적자원의 확보, 보상, 개발, 유지에 대한 이론과 실무기술입니다.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루는 인사분야에

심리학 전공자가 가지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개성이 중시됨에 따라 사람을 다루는 일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활용가치가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제시된 네 가지 자격증 이외에도, 심리학도가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자격증이 찾아보면 많습니다. 많이 알려진 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직업상담사부터 생소한 실천예절 지도사까지 많은 자격증이 존재합니다. '뭐하지?' 라는 고민만 하기 보다는, 이것저것 찾아보고 도전한다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원 인터뷰

부산대 심리학과 졸업생 유나영 박사

벌써 날이 많이 추워지고 믿기 힘들지만 또 다시 한 학기가 끝났습니다.

매번 학기가 끝날 때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지 걱정이 늘어난 가는데요.

그 중에는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 싶지만 '과연 내가 대학원에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그 후엔 어떻게 될까?' 고민하며 그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선배분들도 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부산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온 유나영 박사 선생님을 만나 인지심리실험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편의를 위해 홍민혜 기자의 홍과 유나영 선생님의 유로 축약했습니다)



홍 : 안녕하세요 선생님~ 먼저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 : 네 안녕하세요 ^^ 만나서 반가워요

홍 : 바로 질문 들어가도 될까요?

유 : 네~시작해봅시다

Q1 어떻게 해서 부산대학교 인지심리실험실에서 학위를 취득하게 되셨나요?

A 저는 학부생 때 인턴을 했었는데, 인턴을 하다 보니 신현정 선생님의 개념 연구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연구를 더 하고 싶어 자연스럽게 부산대 대학원으로 오게 됐어요.

Q2 여러 전공 중에 특히 인지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인간을 보는 학문 중에서 심리학처럼 데이터 가지고 보는 학문이 없잖아요. 철학, 문학도 인간을 보는 학문이라도 이런 것은 보는 사람의 생각만 있지만, 심리학은 내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우린 왜 이렇게 행동할까, 우린 왜 이렇게 생각할까' 이런 물음에 대해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에 근거한 통계로 사람을 보는 점이 재미있었어요. 사람을 정량화해서 보는 방법이 매력적이죠. 그런 인지심리학의 모호하지 않고 확실하게 딱 떨어지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홍 : 우와 저도 잘 몰랐는데 인지심리학이 굉장히 멋진 학문이었네요!



Q3 그럼 주로 어떤 연구를 하셨나요?

석사학위는 신현정 선생님께서 지도교수님이셨고 저는 개념 결합 연구를 했어요. 명사 두 개를 붙여 만드는 '빌딩 숲' 같은 단어가 어떻게 그렇게 되나? 그런 것에 대해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는 개념기반 귀납추리에 대해 연구했었는데, 이번에 그 주제로 집담 회도 했었어요.

개념기반 귀납추리란 건, 간단하게 예를 들면 어떤 컵을 보고 나서 내가 컵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 컵을 보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거죠. 신현정 선생님께서 쓰신 '개념과 범주화'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Q4 그럼 요즘은 인지심리 실험실에서 어떤 연구를 하세요?

A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SSK 연구 프로젝트를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하고 있어요. 저는 SSK 연구팀에서 전임연구원으로 '한국인의 행복'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최우수 연구상을 받았어요. 매일 학교에 갔지만 좋아하는 연구를 하니 행복하죠 ^^

홍 : 인터뷰를 진행해갈수록 선생님 정말 멋있고 좋아하는 연구도 하시고 부러워요. 갑자기 궁금한게 생각이 났어요!

사람을 정량화해서 보는 방법이 매력적이죠. 그런 인지심리학의 모호하지 않고 확실하게 딱 떨어지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Q5 석사학 학위를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A 박사 때는 대학원 과정의 필수 과목을 이수했어요. 통계, 인지심리학 관련 과목, 그 외에 원하는 걸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심리학과 과목도 들어야 했지만 사회과학대학 밖의 수업을 꼭 하나 들어야 했었는데 그 수업이 어려웠어요. 심리학과 수업은 계속 공부를 해왔으니까 괜찮았는데 타대 수업이 어려웠어요. 석사 때는 논문을 쓰고 선생님들께 검사를 받고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박사 때는 박사 자격시험을 보고 박사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을 쓴 걸로 선생님들을 설득해야 해요. 더 공부를 많이 해야 하죠. 석사과정은 앞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위한 과정이고, 박사는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좀 더 뚜렷하게 있어야 하고 좀 더 좁고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주제가 점점 세부적으로 깊게 가는데 그런 것이 재밌는 점이기도 하고 힘든 점이기도 해요.

Q6 학부와 달리 대학원 생활에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요?

A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일이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회사에서처럼 프로젝트가 시작해서 끝나고 하는 게 아니니까 호흡을 길게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Q7 마지막으로 인지심리학 대학원을 생각하고 있는 학부생들에게 해줄 말씀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학부생일 때는 학부 공부를 하다가 인지심리학이 재미있으면 실험실에 들어와서 실제로 보고 배우면서 '내가 과연 좋아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고 그 결과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리고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석사과정을 할 수 있겠죠? 인지심리학이 재미있고 관심이 있으면 한번 들어와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공부하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학부생 때는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걸까? 저걸 좋아하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 의사결정이 어렵죠. 좋아한다고 생각한다면 일단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단체 생활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시작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낯설고 힘들겠지만 그만큼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좋아할 수 있으면 계속 할 수 있으니까요.

효원 심리센터를 소개합니다



효원 심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첫째

개인의 적성과 흥미, 가치관에 바탕을 둔 진로개발과 관련된 상담업무

둘째

학업이나 직업에서의 수행능력을 향상 시키는 능력 향상 훈련

셋째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향상훈련

넷째

심리검사 및 평가와 분석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효원심리센터는 부산대가 2011년 3월 전국 국립대학 중 최초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 심리서비스 기관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주민들의 행복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설립된 본 효원심리센터는 부산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심리서비스 역량을 결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가정, 학교, 직장에서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 효원심리센터는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홍창희 교수님께서 소장자로 역임하고 계십니다.

효원심리센터는 부산대학교 문창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효원심리센터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늘 수업 때 뵙다가 이렇게 센터에서 뵈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은 저희 심리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효원심리센터에 대해 알아보고자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Q1 효원심리센터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오나요?

저희 센터에는 다양한 연령대가 다양한 호소 문제를 가지고 방문합니다. 아동에서부터 중년까지, 도움을 얻고자 하는 영역도 다양합니다. 또래관계 및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 청소년, 자녀의 집중 곤란 및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님, 미래의 진로나 직업에 대한 걱정이 많은 청소년 및 성인, 직장이나 학교에서 적응 곤란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성인, 부부관계 문제, 본인의 강점을 찾고 실현시키고자 하는 성인, 연애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군대에서의 적응 곤란, 이외에도 미혼모,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지적장애, 발달장애 등의 호소를 가진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Q2 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센터를 찾고 계시는군요! 그럼 이 분들께 어떤 서비스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4가지로 아동상담, 청소년 성인상담, 집단상담,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아동상담은 주로 놀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청소년 및 성인상담은 일대일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배워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은 주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집단의 요구나 목적에 따라 집단의 회기, 구성원이 정해지며, 집단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모두가 조언자가 되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은 뉴로피드백 훈련, 청지각 훈련, 시지각 훈련으로 구성되며, 주의력이 부족하거나 정보처리 속도가 저조한 양상을 보이는 등으로 인해 학습 및 대인관계에서 곤란을 겪는 경우에 도움이 되며, 신경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뇌를 최적상태로 훈련시킬 수 있게 함으로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도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Q3 주로 심리학과 졸업생들이 활동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센터에는 심리학과, 교육학과, 아동가족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이 운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중 일부는 검사해석, 상담 등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청소년 상담사, 놀이치료사 등의 자격을 갖춘, 심리학과, 아동가족학과 등의 대학원 석사 이상의 선생님들이 상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복해 지고 싶으신 분들 주저 말고 효원심리센터를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Q4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들이 센터에서 활동을 하시는군요! 혹시 교수님, 가장 인상 깊었던 내담자가 있으신가요?

주호소는 평소 친구들에게는 조용하고 수동적이나, 남자친구에게만 분노조절이 어렵고, 자기표현이 스스로 없이 나와 관계를 지속하는데 곤란을 겪는 등의 양상이 반복되어 심적 고통이 크셨던 분으로 스스로 방문하셨던 여성분입니다. 심층적인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의 상태나 과거부터 지속되어왔던 대인관계 패턴, 가족과의 갈등 등을 이해하며,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고, 새로운 시도를 하며, 검사하길 잘했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내담자는 심리검사를 통해 유익했던 면이 있어, 곧 남편이 될 남자친구에게도 권하였고, 평생의 반려자인 상대의 마음을 보고, 서로의 결과를 함께 들으면서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Q5 마지막으로 효원심리센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전화(051-510-7673)나 방문을 통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에 예약을 합니다. 효원심리센터는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약 후 첫 방문 시 면담과 간단한 심리평가를 실시하여 내담자의 현재 상태와 주호소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후 심층적 심리평가, 상담, 주의력 훈련 등 내담자에게 적합한 개입이 진행됩니다.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에게는 할인이 적용됩니다.

교수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효원심리센터를 방문함에 있어서 왠지 모를 막연함 때문에 선뜻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본 인터뷰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에게 할인까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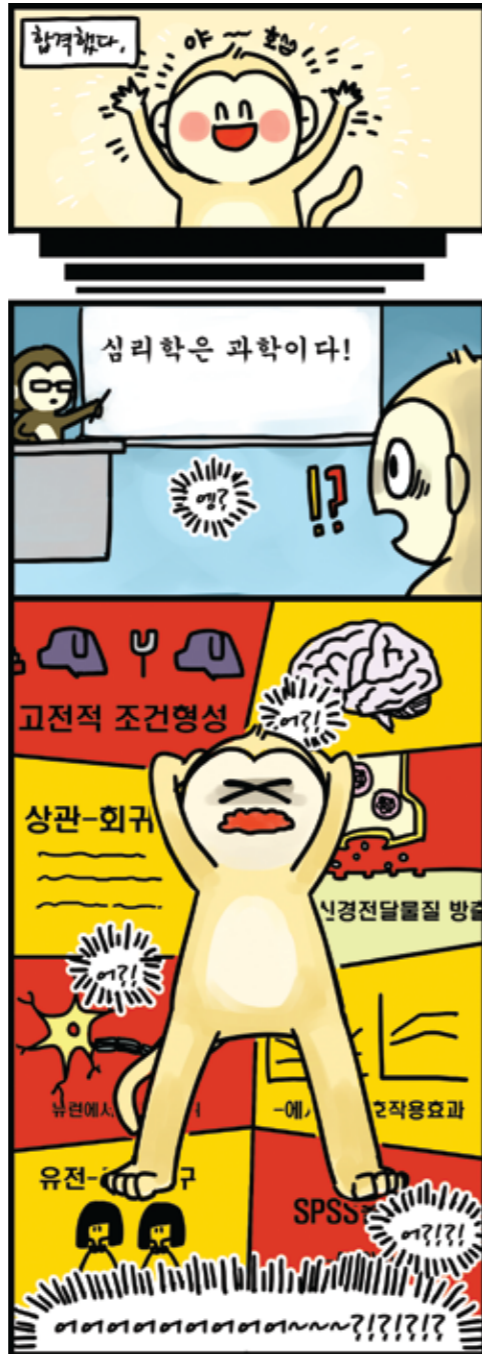
인터뷰를 마치며...

본 인터뷰의 마지막에 홍창희 교수님께서 행복의 요소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개인의 행복은 자율성 있는 삶과 원만한 대인관계, 직업적응을 잘 하며 자기 능력의 실현을 통해 성취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효원심리센터는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 행복을 찾아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것을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센터를 찾아오는 내담자들뿐 아니라 학교나 기업, 서비스를 요구하는 기관 등을 상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행복해 지고 싶으신 분들 주저 말고 효원심리센터를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공감백배 Real 심리학 적용기



현보림 pulgom@naver.com



Psyche Story 영화 속 심리학



킹스 스피치_ 2010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아버지인 조지6세의 이야기를 다룬 실화이다.

그는 형 에드워드8세의 왕위 포기로 본의 아니게 왕위에 오르게 된다. 어린 시절부터 늘 형의 그늘 아래서 자라 소심한 성격, 병약한 체질, 특히 심각한 말더듬증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그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했고, 당연히 왕위에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영화에서는 우는 장면까지 등장할 정도로 왕위에 오른 것을 힘들어했다. 하지만 그는 원치 않는 자리였음에도 왕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면서 영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왕이 되었다.

영화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의 감동과 더불어 그의 언어치료사였던 라이오넬 로그와의 신분을 초월한 우정도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 라이오넬은 교육다운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조지6세의 말더듬증과 위축된 자신감에 대해 표면적 치료보다는 내적요인을 찾아 근본적 치료를 해주기 위해 애썼고, 조지6세는 점차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놓으며 스스로를 극복하게 된다.

영화에서 특이한 점은 영상을 통해 조지6세의 심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주로 그가 화면 구석에 나타나는데 이는 위축된 심적 상태를 보여준다고 한다. 또한 그의 시선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영상에 불룩한 효과를 줌으로써 말더듬증으로 인한 두려움을 보여준다. 이처럼 영화에서는 하나하나 그의 심리상태와 변화를 잘 나타내 준다.

요즘 같이 자신을 '잘' 드러내며 스피치를 '잘' 할 수 있어야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부담감으로 괴로워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는 세상이라는 환경적 요인 때문일 수도, 스스로에 갇혀 있는 내적 상태 때문일 수도 있다.

어떤 이유든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를 원할 것이다. 영화를 통해 우리는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상황에 빗대어 볼 수 있다.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 또한 우리의 심리상태를 조금이나마 빗대어보고 내면적인 치유를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healing의 심리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Healing의 심리학 두 번째 이야기

우리는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으며, 영화를 보며 수많은 감정을 경험한다.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생각한다.

울고 싶다고 마음대로 울 수도 화를 낼 수도 없고, 마음 놓고 기뻐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많다.

그럴 때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된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약 속에 살아가면서

마음의 병을 얻게 되고 혼자임을 느끼고 위축될 수 있는데, 우리는 역시 극복하기 위한 무언가를 찾게 된다.

이 무언가가 심리학을 통한 치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심리학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음악 속에서, 책 속에서, 영화 속에서.



안녕하세요.
2013년도
심리학과 학생회장
함영은입니다.



제가 학생회장으로서 준비하고
회의하기 시작한 날도 이맘때쯤
추운 날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또 추워졌네요.

저에게 일학년일을 마치고 바로 학생회장직을 맡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
었지만 그래도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되돌아보니 심리학과 여러분들과 함께한 많은 추억
들이 생각납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학과 내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보다 많은 행사를 마련하려고 노력했었고, 예년보다는 다양하고 재미있
는 추억을 만들려고 학생회 친구들과 머리를 맞댔었습니다.

사실 중,고등학교와 달리 대학에서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생회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다보니 저에게 “우리
과” 라는 과부심(학과+자부심)이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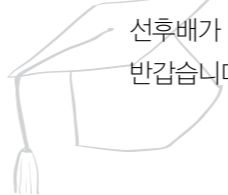
이러한 과부심 덕분에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앞으로 크고 작은 행사들을 통해 서로 소통하
고 교류하여 과부심을 조금이라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부족하지만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신 조교선생님과
많은 선배님들, 동기, 후배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푸름선배와 부학생
회장 남림이, 그리고 우리 학생회 친구들에게도 함께 해주어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2014년 1학기 심리학과 학사 및 행사일정



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위수여식 (졸업식)
선후배가 처음 만나는 간담게임
반갑습니다, 가족엠티



3월 개강/입학
개강총회
신입생환영회 (신복엠티)

5월 봄산행
대동제 (주막)



프시케스토리 기자단



상담심리전공 황제욱



발달심리전공 김지혜



임상심리전공 백서연



09학번 박은철



11학번 홍민혜



11학번 노희완



11학번 유푸름



12학번 함영은



프시케 Story

발행일 2013. 12. 10
발행처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장전동)
Tel 051. 510. 1561
Fax 051. 581. 1457
홈페이지 psy.pusan.ac.kr
기획·편집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